

정확한 콘돔착용은 100% 에이즈예방!

콘돔 완전정복

∴ 유은주 본회 교육연수과장

콘돔이 에이즈예방의 최선책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단 그 전제조건이 '정확한 착용'이다. 콘돔을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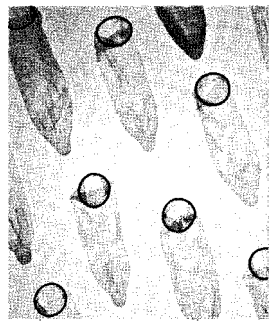
"콘돔은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은 에이즈 예방 민간 단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최고의 캐치프레이즈이다. 에이즈 전파 경로가 뚜렷하게 밝혀지고 에이즈 예방법으로써 콘돔의 효능이 확인되었던 1980년대. 에이즈 전문가들은 이제 에이즈 확산을 막을 가닥이 잡혔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비관적이었다. 콘돔의 기특한 역할이 알려진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여전히 에이즈와의 전쟁을 수행 중이다. 그것도 아주 열세의 입장에서 말이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에이즈는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콘돔을 사용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지식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꾸준히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에이즈가 아직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거기에 콘돔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콘돔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만큼이나 콘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콘돔 사용 실패 다수는 사용자 탓

우스개 이야기 하나. 옛날 옛날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평소 자기 누나의 이름이 '폭포수 아래에서'라는 게 신기해서 부모님께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여쭙었다. 부모님 왈 '너희들 이름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생겨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지은 거란다. 너희들을 만들었던 우리 추억의 장소나, 기억할 만한 일을 담은 것이란다. 이제 이해가 되니? 찢어진 콘돔아?'

이 이야기는 콘돔을 써도 피임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하고 희화화하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어 넘기고 만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다. 콘돔을 써도 안전하지 않은가? 라는 막연한 걱정과 불신아...



콘돔 불량에 대한 신뢰는 오래되고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콘돔의 추억'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콘돔 그 자체 태생의 결함이기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2차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콘돔을 둘러싼 환경이란 소비자가 콘돔을 구매하여, 보관하고, 실제 사용하기까지의 세부적인 과정이 해당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콘돔 실패(파손이나 벗겨짐)의 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이다.

사용자 과실로 인한 콘돔 실패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우스개 이야기에서처럼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순간의 황당함과 절망, 콘돔을 정확히 썼을 때 예방할 수 있었던 임신,性病, 에이즈, 혹은 성접촉을 매개로 전파되는 기타 질병들이 내 몸속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게임에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신체현상을 넘어서 심리적, 정신적 충격과 변화를 고하는 일대의 사건들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국의 조사에 따르면 콘돔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1년 이내에는 사용 미숙으로 인한 실패율이 높게는 12%까지 나타나지만, 익숙해

진 후부터는 1% 이하로 낮아진다고 한다. 콘돔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전제한다면 원치 않는 임신, 에이즈/성병 예방은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과실이 일어날 가능성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태초에 콘돔 있었으나... 생산 과정

콘돔 생산 공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입 방법으로 콘돔을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털어 줄 정도로 완벽에 가깝게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콘돔 회사의 일방적인 선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콘돔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생산된 제품의 상당량을 국제기구(WHO)에서 수출하고 있고, 그 제품들이 세계 에이즈 예방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 평가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쓰러린 콘돔의 추적이 태생적 결함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손에 도착하기까지... 유통

콘돔은 유통과정에서 열, 습기, 오존, 햇빛 등의 노출로 인한 변질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콘돔의 질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생산업체에서의 저장상태가 양호했다고 하더라도 창고에서 소매로 유통되는 과정의 자동차 안, 매장의 진열대, 판매 시설의 환경 역시 콘돔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콘돔은 열이나 빛에 약하다. 가급적 원래 포장된 종이 용기 속에 담아, 서늘한 음지에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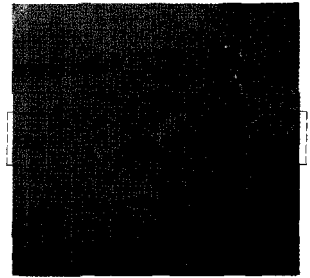


보관 방법

콘돔 보관의 문제는 소비자의 손에 콘돔이 들어 온 다음이 더

중요하다. 만약 자동차 안이나 바지 주머니 같은 곳에 콘돔을 넣어 둔다면, 열에 의해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콘돔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콘돔에 예쁜 색깔을 입히고, 속이 들여다보이는 용기로 날개 포장한 제품들도 있다. 필름 상태로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포장된 콘돔의 경우 햇빛에 노출 되었을 때 쉽게 변질 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 원래 포장 된 종이 용기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콘돔이 담겨진 용기 겉면이나, 날개로 포장된 콘돔의 표면에 제품 제조일자 확인 후 사용.



기억하시라, 콘돔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씀...

유통기한

콘돔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을 살펴보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콘돔은 제품의 노화 때문에 사용 도중 파손될 위험이 있다. 보통 콘돔이 담겨진 용기 겉면이나, 날개로 포장된 콘돔의 표면에 제품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라면(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콘돔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이는 유통기한 중에 발생했을 수 있는 콘돔의 변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콘돔 자체의 색깔이 탈색되거나 균일하지 않은 것, 촉감이 건조하거나 끈적거리는 것은 콘돔이 변질된 것이다.

다행히 콘돔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생산에서 소비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몇 달 안에 소비된다고 하니,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말처럼 매사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성행위 전후로... 사용 방법

성행위 도중 콘돔 실패(파손이나 벗겨짐)의 위인은 사용미숙, 착용 과정의 훼손, 수용성이 아닌 윤활제 사용, 전희 부족에